



*사진은 AI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numbers

vol. 334 | 2026.5.12.

여성 교역자 실태·인식
담임목사 78%, 한국교회 내
여성 교역자 차별 존재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반려동물 양육 실태
2. 고령층(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

넘버즈 칼럼
초고령사회, 노년의 삶과 돌봄의 윤리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담임목사 78%, 한국교회 내 여성 교역자 차별 존재한다!

한국 교회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고민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바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여성 교역자들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유리천장, 여성 교역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도 10명 중 9명(90%)이 여성 교역자가 교회 사역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여성 교역자를 향한 성도들의 깊은 신뢰를 드러낸다. 심지어 담임목사직 수행에 대해서도 71%의 성도가 문제없다는 열린 인식을 보였다. 사역의 수혜자인 성도들은 이미 여성 사역자의 전문성과 영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사뭇 다르다. 남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 담임목사의 78%는 한국교회 내에 여전히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며, 여성 교역자의 주 사역 부서가 교회학교에 편중(71%)되어있는 현상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여성 사역은 이제 단순한 '보조'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탱하는 '핵심' 역량이다. 이번 <넘버즈 334호>에서는 여성 교역자의 사역 실태와 성차별 인식 등을 살펴보고, 이들이 가진 은사가 현장의 제약 없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교역자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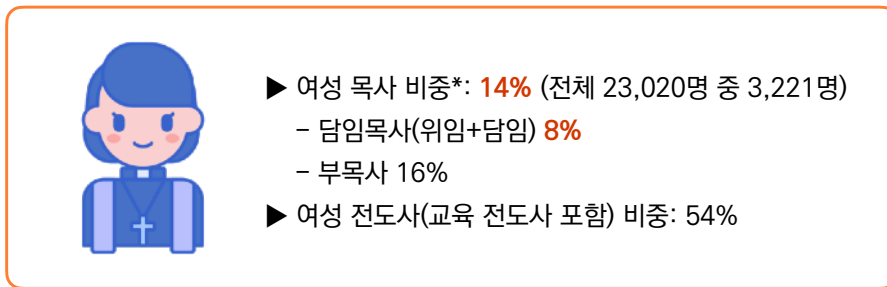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 분	여성 교역자 조사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여성 교역자 (담임목사/담임전도사, 부목사, 강도사/전도사 등)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교회출석자)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324명(유효표본)	총 1,000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한 URL발송)	모바일 조사 (문자를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조사(목회데이터연구소)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	-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 교회 규모별 가중치 적용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5월 30일 ~ 6월 2일 (총 4일간)	2025년 5월 15일 ~ 22일 (총 8일간)	2025년 6월 2일 ~ 10일 (총 9일간)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여성 담임목사(예정통합 기준) 비율, 8%!

- 매년 교세 통계를 발표하는 예정 통합 교단 자료(2025년 보고)를 통해 한국의 여성 교역자 실태를 살펴본다. 2024년 말 기준 예정통합 소속 전체 목사는 23,020명이었는데 이중 여성 목사는 3,221명으로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임목사로 국한해서 보면, 여성 담임목사는 전체 담임목사의 8%로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다.
- 여성 전도사 비중은 절반 이상(54%)으로 남성 전도사(46%)보다 8%p 높았다.

[그림] 예정통합 소속 여성 교역자 비중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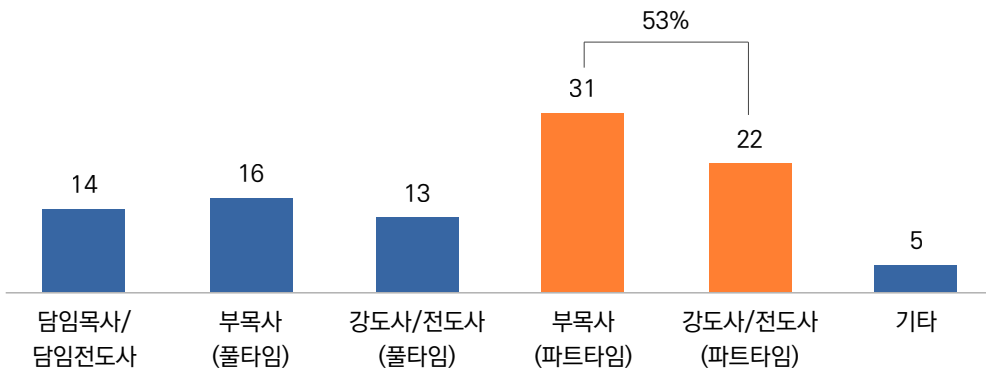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제110호 총회 보고서, 2025

*전도목사, 군종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교육목사, 원로목사 등은 이번 범버즈에서는 다루지 않음(위 보고서 참조)

여성 교역자 절반 이상(53%), 파트타임 사역자

- 이제부터 여성 교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교회 내 직책을 여성 교역자들에게 묻은 결과, '부목사(파트타임)' 31%, '강도사/전도사(파트타임)' 22%, '부목사(풀타임)' 16% 순이었으며, 절반 이상(53%)이 파트타임 사역자인 점이 눈에 띈다.

[그림] 교회 내 직책 (여성 교역자, N=3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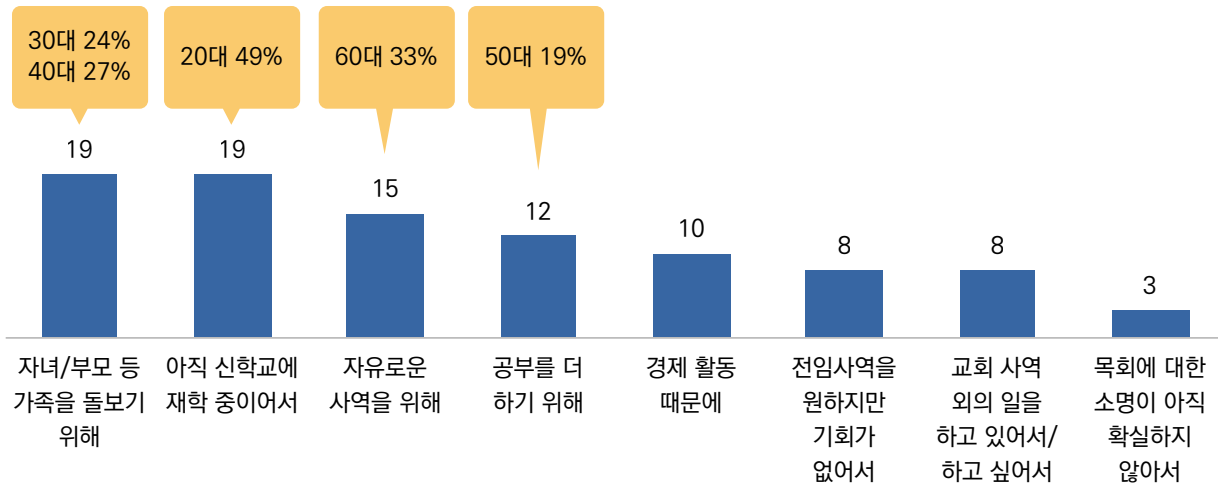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파트타임 사역 이유, '가족 돌봄/신학교 재학 중'!

- 여성 교역자들이 파트타임 사역을 하는 이유로는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19%)와 '아직 신학교 재학 중이어서'(19%)를 가장 높게 꼽았다.
- 다만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 여성 교역자는 '아직 신학교 재학 중이어서', 3040세대는 '가족 돌봄 때문에', 50대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 60대는 '자유로운 사역 위해'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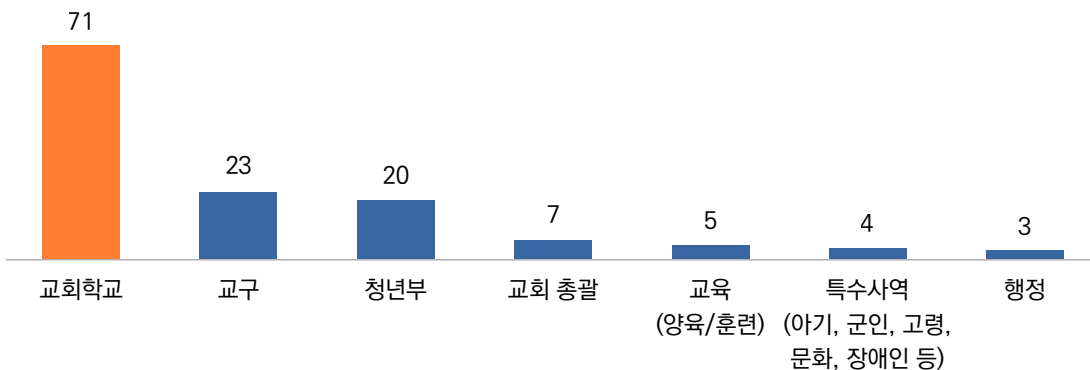
[그림]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이유 (여성 파트타임 사역자 중 응답자, 상위 8개, N=150, %)



여성 교역자 주 담당부서, '교회학교'가 압도적(71%)!

- 여성 교역자들에게 담당 부서를 물은 결과, 교회학교가 7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교구' 23%, '청년부' 20%, '교회 총괄' 7%, '교육' 5% 순이었다.
- 성인 대상인 교구 담당, 청년부, 성인 교육 등을 맡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영/유아 대상 교회학교에 여성 교역자의 직무가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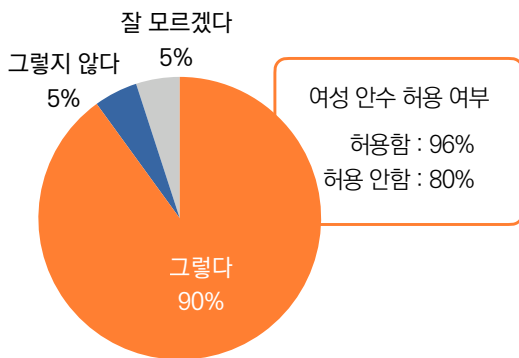
[그림] 담당 부서 (여성 교역자, N=324,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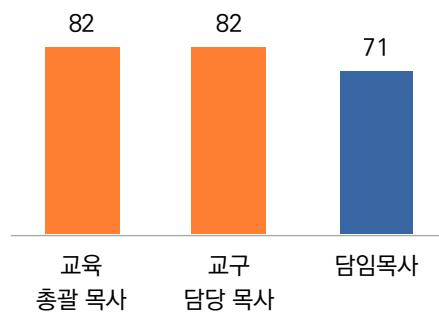
성도, '여성 교역자 역량 충분하다' 90%!

- 여성 교역자가 교회 사역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성도(출석교회에 여성 교역자가 있는 경우)에게 묻은 결과, 90%가 '충분하다(그렇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 소속 성도'의 경우 그 비율이 96%에 달해 압도적인 신뢰를 보였다.
- 구체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인식은 상당히 열려 있었다. 교육 총괄이나 교구 담당 목사 역할에 대해서는 82%가, 담임목사직 수행에 대해서도 성도 10명 중 7명(71%)이 '문제없다'고 응답했다.

[그림] 여성 교역자 역량 평가
(‘교회 사역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비율, 출석 교회에 여성 교역자가 있는 교회 성도, N=707)



[그림] 여성 교역자 역할 수행 적합성 평가
'문제없다' 비율* (출석 교회에 여성 교역자가 있는 교회 성도, N=7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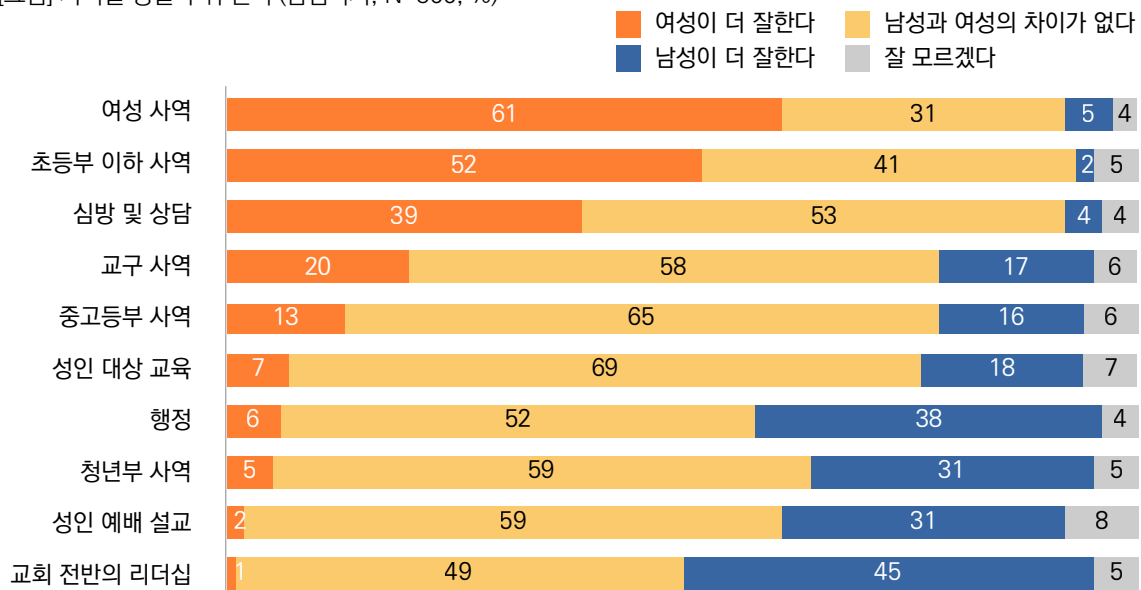


*3점 척도(적합하지 않다, 문제없다, 잘 모르겠다)

담임목사, '여성/초등부 이하 사역·심방'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

- 세부 사역별 남성교역자와 여성교역자 중 누가 더 잘 하는지 성별 우위를 담임목사에게 묻은 결과, '여성 사역'(61%), '초등부 이하 사역'(52%)은 '여성이 더 잘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그 외 '심방 및 상담'(53%), '교구 사역'(58%) 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 10개 영역 중 전체적으로 남성 교역자가 더 잘한다는 의견이 50%를 넘긴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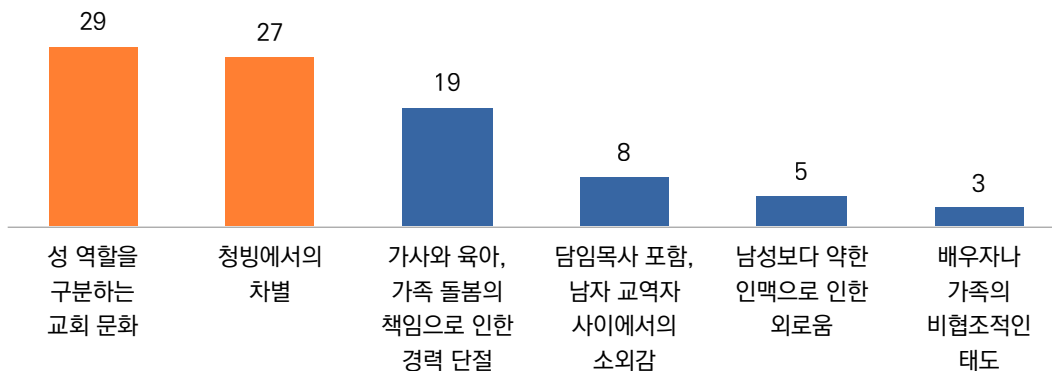
[그림] 사역별 성별 우위 인식 (담임목사, N=500, %)



여성 교역자, '성역할 구분하는 문화/청빙 차별 가장 힘들다'!

- 교회에서 여성 교역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성역할을 구분하는 교회 문화'(29%)와 '청빙에서의 차별'(2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결국 사역 현장에서 느끼는 여성 교역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의 역량보다는 교회 내의 제도적·문화적 장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돌봄과 사역을 병행하기 어려운 여성 교역자의 환경과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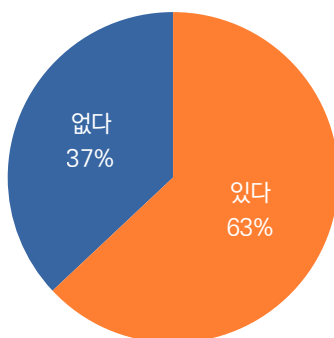
[그림] 여성 교역자로서의 어려움 (여성 교역자, N=324,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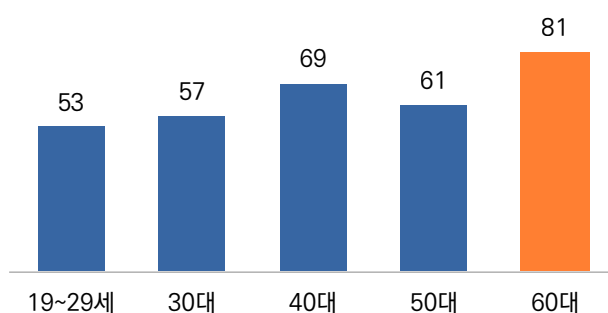
여성 교역자 63%, '사역 중 성차별 경험했다'!

- 성차별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여성 교역자 3명 중 2명 가까이(63%)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차별 경험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53%)와 30대(57%)에서도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경험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81%에 달하는 응답자가 성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림] 성차별 경험 유무 (여성 교역자, N=324)



[그림] 연령별 성차별 경험 '있다' 비율 (여성 교역자, N=324, %)



여성 교역자가 꼽은 성차별 1위, 남성 교역자와 동등한 존중 못 받음(56%)!

- 성차별 경험 여성 교역자에게 어떤 성차별을 겪었는지 묻은 결과(복수응답), '교인들로부터 남성 교역자와 동등한 존중을 받지 못함'이 절반 이상(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례비 및 처우에 대한 차별' 44%, '목회자 청빙에서의 차별' 39% 등의 순이었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남성 교역자와 동등한 존중 받지 못함'을 가장 큰 성차별 항목으로 지목했고, 30대는 '사례비 및 처우 차별', '50~60대'는 '목회자 청빙에서의 차별'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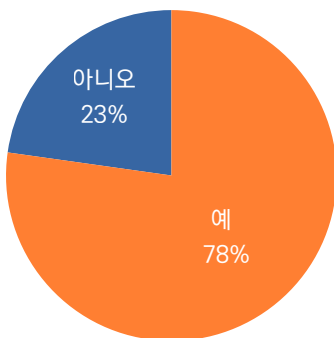
[표] 성차별 내용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 교역자, N=203, 상위 5개, 복수응답)

구분	교인들로부터 남성 교역자와 동등한 존중을 받지 못함	사례비 및 처우 (사택, 차량,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한 차별	목회자 청빙에서의 차별	설교 등 업무 배정에서 차별	각종 모임에서 자리 배치 또는 소개에서 배제	
전체	56%	44%	39%	36%	29%	
연령별	19~29세	79%	21%	17%	38%	17%
	30대	53%	53%	43%	38%	34%
	40대	53%	44%	34%	36%	31%
	50대	52%	48%	48%	24%	22%
	60대	56%	40%	48%	48%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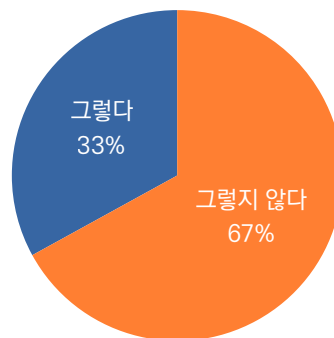
담임목사 78%, 한국교회 내 여성 교역자 차별 존재한다!

- 한국교회에서 여성 교역자가 단지 여성이기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담임목사 10명 중 8명 (78%)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 또한, 한국교회가 여성 교역자에게 공정한 사역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가 67%로, '공정하다'(33%)는 인식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담임목사 그룹조차 현재의 사역 환경이 여성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한국교회 내 여성 교역자 차별 대우/어려움 인식 (담임목사, N=500)



[그림] 한국교회 내 여성 교역자 공정 사역 기회 제공 인식* (담임목사,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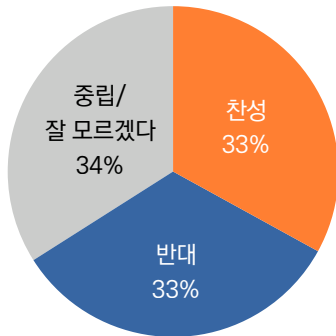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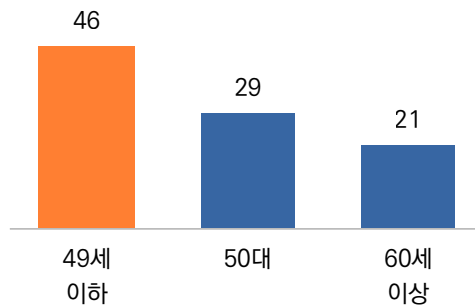
여성안수 미허용 교단 목회자, 여성안수 찬반 팽팽히 맞서!

-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의 담임목사에게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 33%, '중립/잘 모르겠다' 34%, '반대' 33%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
- '찬성' 의견은 담임목사의 연령대가 낮을수록(49세 이하 46%)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여성 목회자 안수 찬반 의견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 허락하지 않은 담임목사, N=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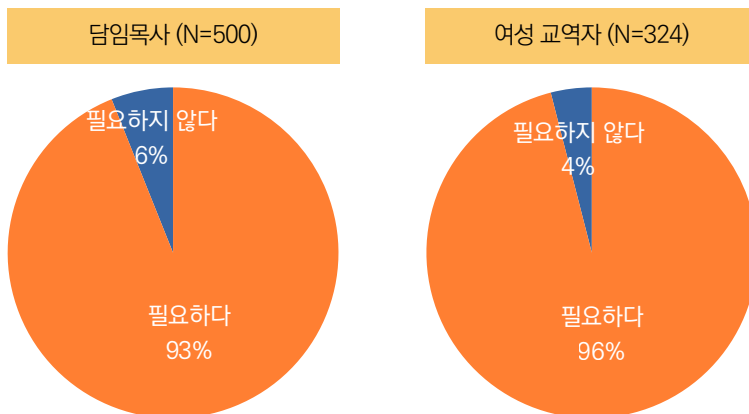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여성 목회자 안수 '찬성' 비율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 허락하지 않은 담임목사, N=132, %)



담임목사·여성 교역자 90% 이상, '여성 사역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여성 교역자의 사역 확대를 위한 교단과 교회 차원의 제도적·문화적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담임목사의 93%, 여성 교역자의 9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그룹 모두 10명 중 9명 이상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압도적인 지지를 표한 셈이다. 이는 여성 사역 활성화가 단순히 특정 계층의 요구를 넘어, 한국 교회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림] 여성 교역자 사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4점 척도

여성 교역자 개선 정책 1위, 안수 미허용 교단은 ‘여성 안수제 통과’!

- 여성 교역자를 위해 시급한 개선 정책을 물은 결과, ‘총회/노회 등에서 여성대표 비율 확대’(38%)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23%, ‘정기적 양성평등 인식 교육 의무화’ 21% 순이었다.
- 주목할 점은 여성 목사 안수 허용 여부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갈린 것이다. 이미 여성 목사 안수가 허용된 교단의 여성 교역자들은 ‘여성 대표 비율 확대’(40%)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나, 미허용 교단의 여성 교역자들은 ‘여성 안수제 통과’(38%)를 1순위 정책으로 지목했다.

[표] 여성 교역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정책 (여성 교역자, N=324, 상위 5개, %)

구 분		총회와 노회/ 연회/지방회 등 에서 여성대표/ 여성임원 비율 확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신학교와 노회, 총회 등에서 정기적인 양성평등 인식 교육 의무화	개교회부터 총회까지 양성평 등 논의 기구 설 치(예: 여성위원 회, 양성평등위원 회 등) 운영	여성 안수제 통과
전 체		38%	23%	21%	11%	4%
소속교단의 여성 목사 안수 허용 여부	허용함	40%	23%	22%	11%	0%
	허용안함	10%	21%	17%	10%	38%

이번호 요약

1. 담임목사 78%, 한국교회 내 여성 교역자 차별 존재한다!

한국교회에서 여성 교역자가 여성이기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담임목사의 78%가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2. 담임목사, ‘여성/초등부 이하 사역’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

세부 사역별 남성 교역자와 여성 교역자 중 누가 더 잘하는지를 담임목사에 묻은 결과, ‘여성 사역’(61%), ‘초등부 이하 사역’(52%)은 ‘여성’이 더 잘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전체 10개 항목 중 남성 교역자가 더 잘한다는 의견이 50%를 넘긴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3. 여성안수 미허용 교단 목회자, 여성안수 찬반 팽팽히 맞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의 담임목사에 여성 목사 안수 의견을 묻은 결과, ‘찬성’ 33%, ‘반대’ 33%, ‘중립/잘 모름’ 34%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 (옥당, 구미정 저)

관련 성경 구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로마서 16:1~2)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한 축인 여성 교역자들이 마주한 견고한 ‘유리천장’의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여성 목사 안수가 허용되는 예장통합교단의 경우 2024년 기준 여성 목사 비중은 14%이며, 그중 담임목사는 단 8%에 불과하다. 이는 제22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20%)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로, 한국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점은 대다수가 남성인 담임목사의 78%조차 한국교회 내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실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지표도 뚜렷하다. 사역의 최전선에서 이를 지켜보는 성도 10명 중 9명(90%)은 여성 교역자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신뢰하고 있었고, 심지어 담임목사직 수행도 성도 71%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여성 사역자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여성’은 보조자’라는 오래된 관습과 제도적 장벽인 셈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여성과 남성 사역자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양성평등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편견을 버리고, 여성 교역자의 직무가 특정 영역에만 머물지 않도록 사역 배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총회와 노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성별이라는 낡은 잣대를 넘어 ‘은사 중심’의 사역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먼저 차별의 담을 허물고 공정한 사역의 가치를 실현할 때, 한국교회에 진정한 평등과 사랑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1. 반려동물 양육 실태
2. 고령층(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

[넘버즈 칼럼]

초고령사회, 노년의 삶과 돌봄의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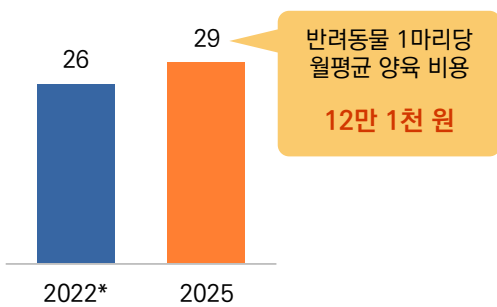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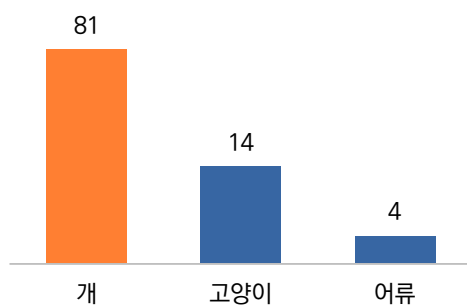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현황을 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29%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대비 3%p가량 반려가구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개(8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14%)와 어류(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는데, 월평균 12만 1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현재 반려동물 양육하고 '있음' 비율
(일반가구 전체, N=3000, %)



[그림] 현재 기르는 반려동물 종류
(반려동물 양육자 기준, 중복응답, 상위 3개, N=8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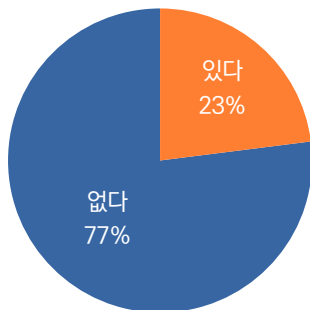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2.12.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전국 3000가구(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당 1인), 면접조사, 2025.10.31.~12.12.)

*2022년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전국 2000가구, 20~69세 성인 가구당 1인, 모바일 조사, 2023.2.15.~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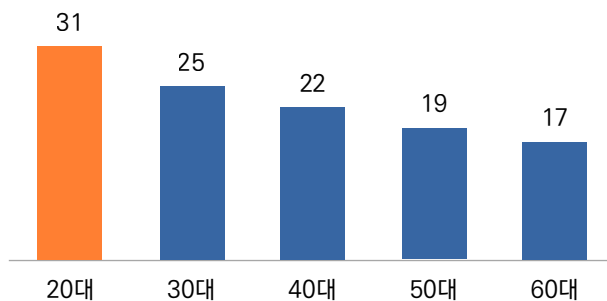
국민 4명 중 1명 가까이, 향후 1년 내 반려동물 입양 계획 있다!

- 향후 1년 이내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는지 묻은 결과, 국민 23%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 4명 중 1명 가까이는 반려동물 입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입양 의사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31%가 입양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향후 1년 이내 반려동물 입양 계획
(일반국민 전체, N=5000)



[그림] 연령별 향후 1년 이내 반려동물 입양 계획 '있음' 비율
(일반국민 전체, N=5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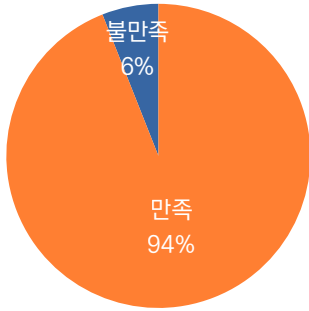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2.12.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전국 3000가구(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당 1인), 면접조사, 2025.10.31.~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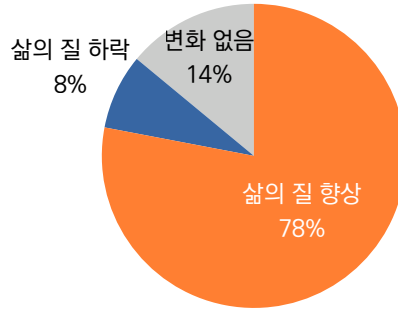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94%...반려동물이 양육자의 삶 전반에 긍정적 영향!

-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양육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반려동물 양육 가구 실태조사(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만족)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또한 '반려동물 양육 후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10명 중 8명(78%)에 달해 반려동물 양육이 양육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반려동물 양육가구 주보호자, 4점 척도, N=2002)



[그림] 반려동물 양육 후 삶의 질 향상 여부* (반려동물 양육가구 주보호자, 5점 척도, N=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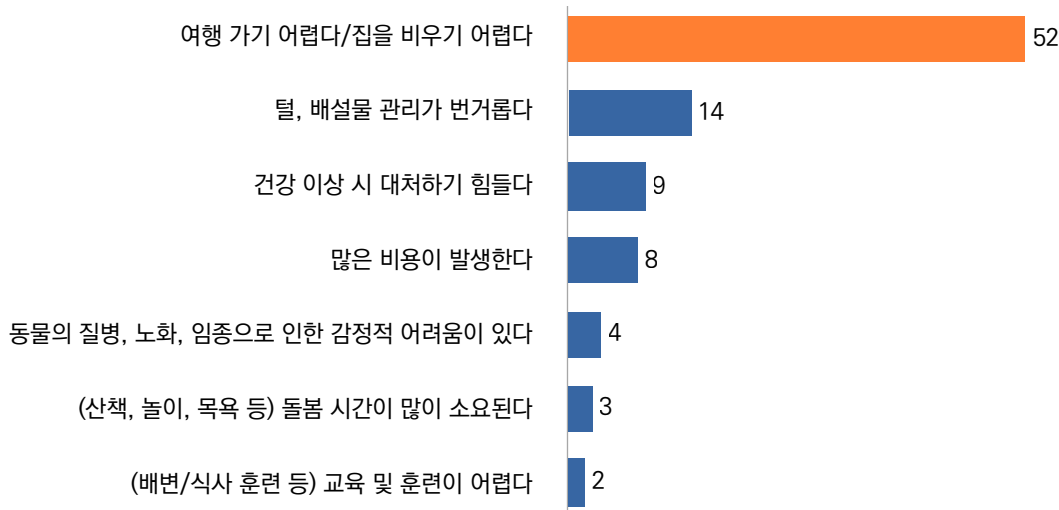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한국리서치-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연구소] 반려동물 양육 가구 실태조사, 2026.04.28.(전국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주보호자 2002명, 웹조사, 2025.03.12.~03.17.)

반려동물 양육자 절반 이상, '여행이나 외출 시 집 비우는 게 가장 힘들어!'

- 반려동물 양육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 절반 이상(52%)이 '여행 가기 어렵다/집을 비우기 어렵다'를 압도적 1위로 꼽았다. 이어 '털, 배설물 관리가 번거롭다' 14%, '건강 이상 시 대처하기 힘들다' 9% 등의 순이었다.

[그림] 반려동물 양육 시 어려운 점 (반려동물 양육가구 주보호자, 복수응답, 상위 7개, N=2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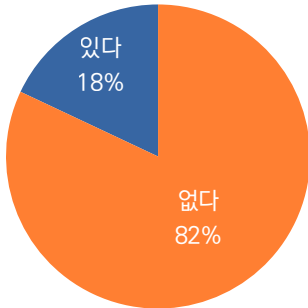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한국리서치-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연구소] 반려동물 양육 가구 실태조사, 2026.04.28.(전국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주보호자 2002명, 웹조사, 2025.03.12.~0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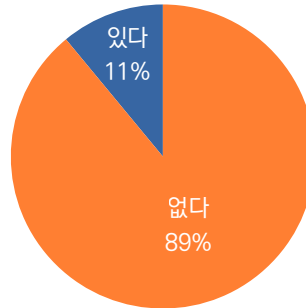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자 11%, '양육 포기나 파양 고민 한 적 있다'!

- 현재 키우는 반려동물 때문에 주변의 민원을 받거나 타인과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 5명 중 1명가량(18%)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그림] 반려동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경험
(반려동물 양육가구 주보호자, N=2002)



[그림] 반려동물의 파양 고민 여부
(반려동물 양육가구 주보호자, N=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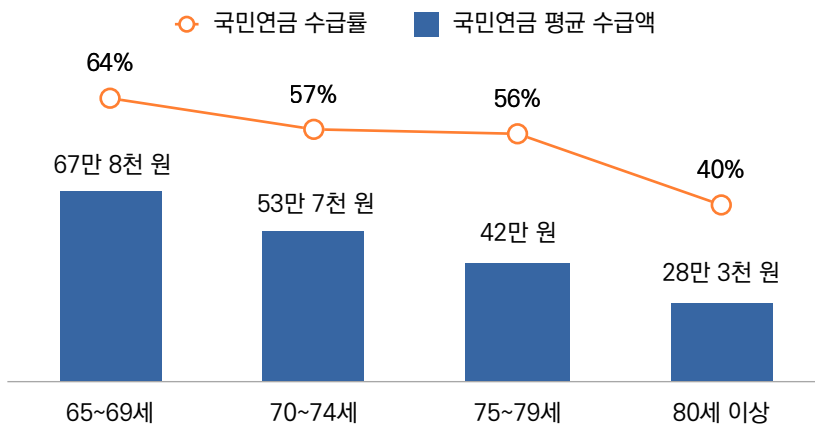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한국리서치-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연구실 기획조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실태조사, 2026.04.28.(전국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주보호자 2002명, 웹조사, 2025.03.12.~03.17.)



60대 중후반(65~69세) 3명 중 2명, 평균 68만 원가량 국민연금 받고 있어!

- 고령층(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본다.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급여지급 통계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자료를 통해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률 및 평균 수급액(2026년 1월 기준)을 산출하였다. 먼저 65세 이상 각 연령대별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을 보면 '65~69세'가 64%로 가장 높고, '70대'는 50% 중반, '80세 이상'은 4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률은 감소했다.
- 평균 수급액도 '65~69세'는 67만 8천 원인데 반해 '80세 이상'은 28만 3천 원까지 줄어들어, 65~69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균 수급액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 현황 (65세 이상, 2026.01. 기준)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 2026년 1월 기준 (<https://www.nps.or.kr/pnsinfo/statistics/getOHAF0119M0.do>)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2026년 1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초고령사회, 노년의 삶과 돌봄의 윤리

김기철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심리상담학)

연장된 노년기

우리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2024년 12월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22.1%에 이른다.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연장된 노년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 변화는 늙어가며 아프고 외로운 시기가 더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노인들의 고립감과 단절감은 삶의 활기와 의미를 앗아가고 무가치함과 우울함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점차 늘고 있으며, 고독사 사망자 중 노인(60, 70대)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라는 시편이 쓰인 시기에 70세에서 80세까지의 10년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연장된 노년인데, 많은 경우 이 시기가 고달팠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에 이르는 현대인들의 연수가 ‘고생과 슬픔(trouble and sorrow)’뿐이라면 ‘자랑할 연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준비 부족,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인 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들의 ‘고생과 슬픔’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사회보다 앞서 이미 초고령교회가 되어 많은 고령 회중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연장된 노년기’가 ‘자랑할 연수’가 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교회에서는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노화 인식 태도나 노인 돌봄에 대한 이해는 제자리걸음이고 노년 사역의 전문성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앙 안에서 노화 인식 태도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고 노인 돌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노화 인식과 노인 돌봄 환경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노화 인식, 노인 혐오, 노화 저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노년층의 독거 비율이 점차 늘고 있고, 시설이나 가정에서의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노인 돌봄을 가족의 책무이기보다는 국가적,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이러한 인식에 맞추어 돌봄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1.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우리 사회에서 늙음은 대체로 추함, 무기력함, 무가치함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규정되는 반면, 젊음은 아름다움, 활기참, 가치 있음 등으로 인식된다. 중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나이듦’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서서히 굳어질 수 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연결](#)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0호 \(2026년 5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헌법 개정 필요성,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찬반, 가족에 대한 인식

사회 일반

[공급 불안에 전세난까지...서울 첫 집 쇼핑 10명 중 6명 '30대'](#)

매일경제_2026.5.6.

[코로나 시기 늘었던 '부모님 안부 전화', 다시 줄었다](#)

연합뉴스_2026.5.7.

[미혼남녀 '출산의향' 2년 만에 29.5%→40.7% 상승](#)

연합뉴스_2026.5.7.

["월 800 벌어 안 외로워요" 나혼자 잘사는 4050](#)

문화일보_2026.5.8.

[서울 인구 29만 줄었는데 '강남 4구'는 4만 증가...연소득 1억원 이상도 늘어](#)

한겨레_2026.5.10.

[로이터 "BTS 월드투어 수익, 2조 7천억 전망"](#)

연합뉴스TV_2026.5.9.

["원치 않지만, 손자녀 돌봐야"...돌봄 조부모 절반은 비자발적](#)

연합뉴스_2026.5.8.

[\[단독\] "10대부터 노후 준비" 강남 부모는 알고 챙긴 '18세 연금'](#)

중앙일보_2026.5.8.

["연명의료 거부"에도... '가족 반대-환자뜻 불확실' 이유 17%만 이행](#)

동아일보_2026.5.6.

[\[2026 결혼인식조사\]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5.6.

아동 · 청소년 · 청년

[초등 고학년 절반, "매일 2시간 이상 스마트 기기 사용"](#)

국민일보_2026.5.4.

[교사 절반 "금쪽이들' 수업방해·교권침해, 이전보다 심해져"](#)

연합뉴스_2026.5.11.

[SKY, 학생부 중요성 커진다... 수시 58% '수능 최저' 없애](#)

동아일보_2026.5.1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단독\] “챗GPT가 노동법 위반이래요”… 노동위 사건 접수 47% 급증](#)

국민일보_2026.5.10.

[개미 80%, 1분기 평균 848만원 수익…70대이상은 1873만원 벌었다](#)

동아일보_2026.5.11.

[출근하면 '클로드'부터 켜는 김대리, 'AI에 자리 뺏길까' 두려움에 떠다](#)

조선일보_2026.5.9.

국제 · 환경

[파트너? 경쟁자? Z세대가 AI에 보내는 ‘러브-헤이트’](#)

동아일보_2026.5.9.

건강

['많이 걷기'보다 '짧게 빨리 걷기'가 압도적으로 좋다](#)

조선일보_2026.5.7.

[침대에 8시간 미만 머물면 심근경색-뇌경색 위험 2배](#)

동아일보_2026.5.6.

[“늙으면 뇌 기능 떨어진다” 뒤집은 연구…70대도 좋아졌다 \[노화설계\]](#)

동아일보_2026.5.11.

기독교 · 종교

[기독교인도 ‘재정 포모’… 교회가 성경적 교육으로 답할 때](#)

국민일보_2026.5.7.

[AI가 사주 풀이… 교인 5명 중 1명 “무속 경험했다”](#)

국민일보_2026.5.7.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4명, “교회 가기 싫어요”](#)

한국기독교공보_2026.4.30.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출간(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AI 코파일럿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목회 전략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5월 26일(화) 14:00~16:00
- 2) 장소 : 온라인(Zoom)
- 3) 진행/간증 : 조효승 목사(비욘드처치)
- 4) 특별 강연 :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
- 5)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조동천 목사'와 함께하는 설교 아카데미

라잇나우미디어에서 설교 아카데미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일정 : 2026년 5월 28일(목) 10:30~16:00
- 2) 대상 : 설교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목회자님, 신학대/신대원 학생
- 3) 강사 : 조동천 목사(예수뿐인 교회)
- 4) 장소 : 구로동로 47길 6, 3층(비욘드처치)
- 5) 참가비 : 3만 원
-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